

1. 금융권 인력 현황

□ '23.4월말 금융·보험업 취업자수는 77.4만명(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)

- 금융권 주요 직무분야 중 영업·마케팅 분야 인력은 감소, IT 등 경영관리 분야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

* 금융권 직무별 인력비중(%): (영업·마케팅) '13년 68.8 → '22년 56.6, (경영관리) '13년 16.3 → '22년 19.8

2. 금융권 인력수요 변화

□ 금융권은 AI, 로봇기술 등을 이용한 업무 자동화를 확대하는 추세

- 지속되는 디지털 기술 발전 및 업무 자동화 추세에 대응하여 금융권은 자체적인 IT인력 확보*를 위해 노력 중

* 은행권 IT인력 중 자체 IT인력 비중 : ('17년) 47.7% → ('21년) 55.3%

* AI로 인해 금융권 인력의 일부가 감축될 수 있으나, 동시에 금융권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측(골드만삭스('23.3월))

□ 금융사고 예방·방지를 위한 금융보안 부문 등의 인력 강화 필요성 증가

- 랜섬웨어, 피싱앱 등 진화하는 사이버위협*에 대한 대응, 전자금융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수요는 지속 확대 예상

* 금융권 대상 사이버공격 시도 현황 : ('17년) 66.3만건 → ('22년) 183.6만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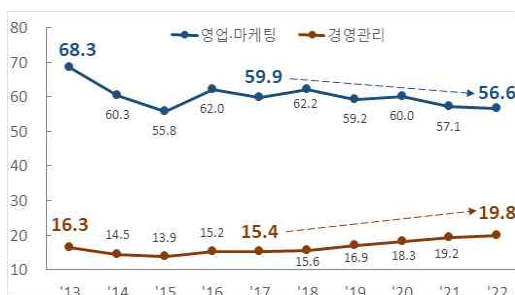
** 한국인터넷진흥원('19)에 따르면 국내 정보보호 인력 공급은 '25년 2,000명 이상 부족 전망

□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新부문 확대

- 클라우드, 마이데이터* 등 관련 부문의 인력 수요가 지속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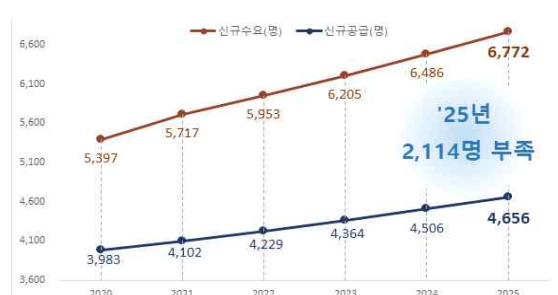
* '23.1월말 기준 64개사 본허가, 60개사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

<금융권 직무별 비중 변화(%)>



* 자료 : 한국금융연구원

<국내 정보보호 신규인력 수급 전망(명)>



* 자료 : 한국인터넷진흥원('19)